

#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10.17.(월) 10:30, 조중훈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국민들이 2013년부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은 10월 21일 금요일 억류된 국민 중 두 분의 가족을 만나 위로를 드리고 우리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족 면담과 위로를 비롯해서 남북회담 및 국제사회 협조 등 다각적 경로를 활용하여 생사확인, 면회, 석방 및 송환 등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중국이 이번 주부터 공산당대회를 진행하는데, 북한이 이런 정치적 행사 때만큼은 무력 도발을 잠시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혹시 통일부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통일부는 현재 유관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